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 :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 :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 :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 복음 11 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짧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사건을 연출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나саро가 죽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면 무엇 때문에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 : 15 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내가 믿게 하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또 여러 분과 내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어귀에 나타나시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먼저 뛰어가 눈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 : 21 --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 :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 : 23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요한복음 11 : 24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하여

요한복음 11 : 25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어도 지금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 : 25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믿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요한복음 11 : 25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1.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말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 :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영생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는 말이고,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재림 때에 그 몸이 다시 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요 6:53-54 에서 아주 clear 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 :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 :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 때 영생을 현재적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차적으로 영생이 들어 와 죽은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중생을 한 사람만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영생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영생을 가진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 때 부활할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지 4 일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 났다고 하는 것은, 비록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시 살아 일어 날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지 십년, 천년이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시체가 화학적으로 분해되면 공기중의 산소와 탄소, 질소로 분해되는데, 그것들이 다시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의 재림시 있을 부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전서 15 :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 : 37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고린도전서 15 : 38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농부가 현재 뿌리는 씨는 장래의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장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어 거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몸으로 심는 것은

장래의 부활의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부활 때 거두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으로 형체를 주시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했던, 죽은지 얼마가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화학 작용에 의해 산소와 질소와 탄소로 분해되었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뿌린 씨와 열매가 동일성이 있듯,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몸으로 심은 것과 부활 때 거두는 열매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씨를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몸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길,

**고린도전서 15 :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모든 씨는 겉껍질을 깨뜨려야 그 안에서 싹이 나옵니다. 모든 씨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만고(萬古)의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 :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현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하늘의 영원한 장막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말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집을 덧입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버리는 첫째 사망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만고(萬古)의 진리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복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의 과정을 거쳐야 몸의 부활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흠인 물질로부터 온 현재의 몸을 왜 벗어 버려야 하는 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현재의 몸을 벗어 버려야 미래의 변화된 몸을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이 극복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 앞에 서신 후

**요한복음 11 : 41**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 :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 : 43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 :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싸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지 사일이 지나 냄새가 나던 시체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들어 가니,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셔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므로, 당신이 죽음을 정복할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망이 극복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신자고 죽고 불신자도 죽는데, 사망이 극복되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합니다.

하기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사로도 다시 죽은 것을 보면서 한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흠에서 온 물질로 된,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몸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몸은 예수님의 재림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는 변화된 몸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된 몸은 이 몸을 벗어 버린 후  
예수님의 재림시에 준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이 확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부활하신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부활하신 그의 영을 받은 것이요,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한다는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 :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 :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사망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변화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명인 영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과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상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직면한 문제인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1970 년대에 있었던 기독교 국산 이단에 천국 세일 교단 이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룡산  
출신인데, 자기가 부활한다고 하며 연못에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시체를 건져  
놓고 부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삼일이 지나자 부활은 커녕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자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이뢰자씨는 자기가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데에는 세가지 중요한 factor 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나사로의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의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서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에서도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 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Moody 선생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Moody 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자신의 부활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 분의 자녀들과, 가정에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